

ISSUE PAPER

2021 Vol. **03**

발행인 이기순

발행일 2021. 6. 28.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학교폭력, 방관자에서 방어자되기

: 청소년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 개발 연구 보고

- 01 학교폭력과 주변인
- 02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 03 학교폭력 방어자 경험조사
- 04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방안



요약

학교폭력과 주변인

- 주변인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주변인 중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괴롭힘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방어자는 학교폭력 예방의 주요한 보호요인임
- 방어자 행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실제로 학교폭력을 목격했어도 방관하는 청소년이 많음
- 방어자의 도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함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 **학교폭력 주변인의 피해/가해 경험** |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50.7%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14.1%는 가해 경험이 있음
- 학교폭력 주변인 가운데 응답자의 48.95%는 방관자, 43.36%는 방어자로 나타남
- **학교폭력 주변인 유형에 따른 행동이유** | 방관자의 43.1%는 '무섭고 나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가만 있었다', 27.7%는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고 응답
- 방어자의 43.1%는 '피해 청소년의 고통이 느껴졌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1.4%는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응답

학교폭력 방어자 경험조사

- **학교폭력 판단 이유** | 학교폭력 상황을 '지켜보니' 장난의 정도가 지나치고, 장난을 빙자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 같다고 여겨 학교폭력이라 판단
-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 | 가해자들은 '괴롭힘과 장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또래관계에서 우월감과 주도권을 잡으려는', '즐거워하고 과시하는', '고의적인 특징이 있음
- **도움 행동에 대한 동기** | '처음에는 방관했지만' 안쓰러운 마음과 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져서, 보고만 있기에 불편해서, 가해자의 행동이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됨
- **구체적인 도움행동** | 직접 신고를 하거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막는 도움보다는 '신고 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게 함께 있어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티내지 않고 도와주기'와 같은 다소 소극적이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방식으로 도움
- **망설이는 마음** | 피해자를 돕다가 나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학교폭력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서, 학생 입장에서 가해자를 막는 용기를 내는 게 어려워 '처음에는 주저했다'고 응답

- **방관의 이유** | 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청소년들의 이유는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도 배척당할까 봐', '보복이 두려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해서'로 나타남
- **피해자를 도운 후 변화** | 방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처벌도 반성도 없었지만 피해 친구가 위로를 받음', '소극적이던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중단하려는 행동을 취함', '피해 친구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낌'

대응방안

- 방관자도 학교폭력 방어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개선 필요
- 학교폭력 상황에서 청소년의 피해자 도움 행동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사례와 방법 제시



01 학교폭력과 주변인

- 학교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국가적 과제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 기숙형 교육시설 내 폭력(일명 서당폭력),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가 문을 닫고 코로나 시대여도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모든 폭력으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을 합하여 학교폭력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때 주변인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미치는 힘은 지대함(Salmivalli, 1999)
- 학교폭력 주변인(bystander)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듣는 사람으로, 주변인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UNICEF, 2016)
 - 첫째, 학교폭력 가해자를 소극적,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해로운 주변인(hurtful bystander)으로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피해자를 비웃거나 또래 괴롭힘을 응원하는 가해 조력자(assistants of the bully), 가해 강화자(reinforcers of the bully)와 학교폭력 상황에서 모른 척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방관자(outsider)가 있음
 - 둘째, 도움이 되는 주변인(helpful bystander)으로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괴롭힘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무엇인가를 하는 방어자(defenders of victim)가 있음
- 주변인은 학교폭력의 주요인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교 전체의 역할과 그 역할의 중심인물로 주변인을 지목(송지연, 2016; 이은영 & 황혜원, 2019)
- 주변사람에 의해 행동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청소년의 특성상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청소년의 행위는 주변인에 의해 더 심화 되거나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음(이인숙 & 박재연, 2019). 만약,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방관하고 모른 척 한다면 가해 행위는 더 심화될 수 있으나, 주변인 중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교사에게 알리는 청소년이 있다면 가해 행위는 멈출 수 있음. 즉, 방어자는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인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음(남미애 & 홍봉선, 2015)
- 방어자 행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교폭력을 목격했어도 방관하는 청소년은 여전히 많음. 최근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교육부, 2021), 청소년의 34.6%가 학교폭력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 또 다른 조사에서도 ‘모른 척 한다’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았음(푸른나무재단, 2021). 학교폭력 방관 이유는 ‘나섰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까 봐’(32.4%)가 가장 높았음

Q.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Q. 방관하는 이유

- 1 나섰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32.4%**
- 2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29.9%**
- 3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15.3%**
- 4 이 정도의 학교폭력은 일상인데다 누구도 학교폭력을 없애거나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10%**

※ 출처: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 푸른나무재단(2021)

- 단순히 방관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학교폭력 상황에서 다양한 행동과 태도로 가해행동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어자가 많아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스포츠계, 연예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가 계속되고 평생을 가는 학교폭력의 고통이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지금(김윤주, 2021. 02. 24), 방어자의 도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주변인 중에서 방관자 및 방어자의 행동 양상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방어자의 경험, 특성, 도움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청소년용 지침서를 개발하였음
- 본 페이퍼는 청소년용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 개발을 위해 실시한 1)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 2) 학교폭력 방어자의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였음

02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조사 개요

- 기간: 2021.04.19. ~ 05.02.
- 대상: 전국의 9-24세 청소년 총 669명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내용: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 목격 후 한 행동, 목격 후 한 행동의 이유

주요 결과

- 청소년 응답자의 18.1%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3.7%는 가해 한 적이 있으며, 21.5%는 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주변인 청소년의 50.7%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14.1%는 가해 경험이 있었음
- 즉, 학교폭력에서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은 고정된 것이 아닌, 언제든지 오늘의 주변인이 내일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어, 학교폭력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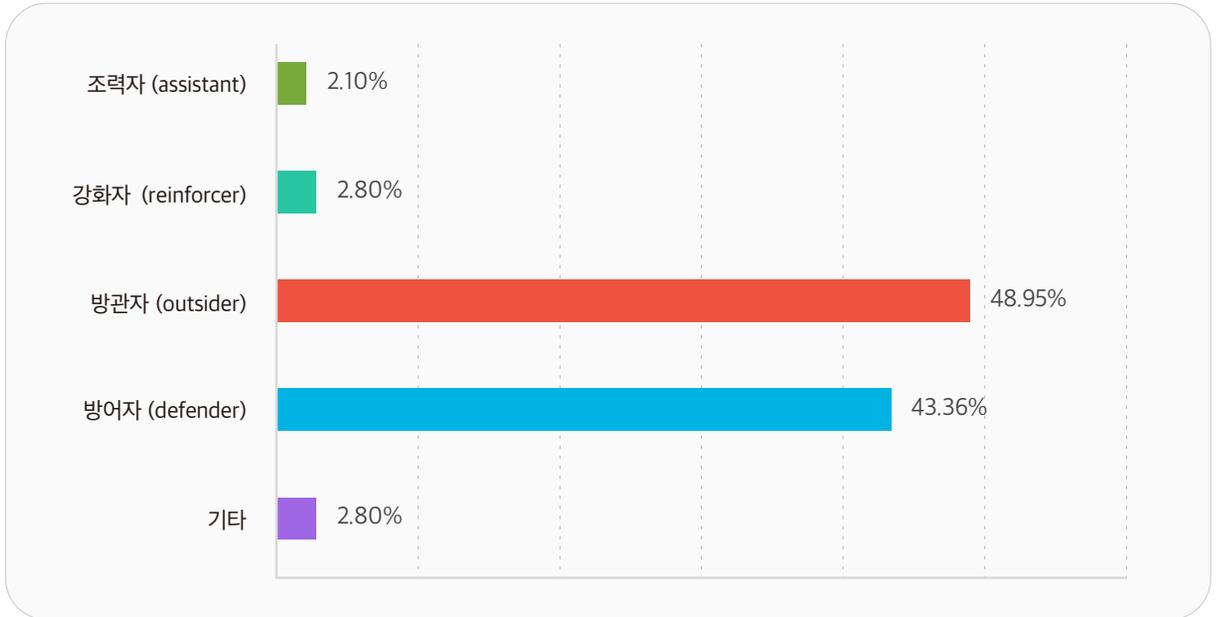
<학교폭력 목격자의 피해/가해 경험 (N = 669)>

구분		학교폭력 목격 경험(%)		전체(%)
		있다(n = 142)	없다(n = 527)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n = 120)	50.7	9.1	17.9
	없다 (n = 549)	49.3	90.9	82.1
학교폭력 가해 경험(%)	있다 (n = 23)	14.1	0.6	3.4
	없다 (n = 646)	85.9	99.4	96.6

※ 학교폭력 경험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 학교폭력을 목격한 주변인 가운데 응답자의 48.95%는 방관자, 43.36%는 방어자로 나타남

<학교폭력 주변인(bystander) 유형>



※ 기타 (e.g.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켜봄)

- 학교폭력 목격 후 한 행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 방관자는 ‘무섭고 나서면 나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가만히 있었다’(43.1%),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27.7%)가 가장 높았음
- 방어자 행동 이유는 ‘피해 청소년의 고통이 느껴졌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3.1%),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31.4%)가 가장 높았음
- 특히 방어자의 약 20%는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또래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이 있어 도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폭력 주변인 유형별 행동 이유>

주변인 유형	이유	빈도(%)
조력자 (n = 3)	단순히 재미를 위해 장난으로	66.70%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까 봐	33.30%
강화자 (n = 3)	단순히 재미를 위해 장난으로	33.30%
	피해 친구에 대한 오해와 갈등으로	33.30%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까 봐	33.30%
방관자 (n = 65)	무섭고 괜히 나서면 나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43.10%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27.70%
	어리둥절한 상황이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7.70%
	피해청소년을 좋아하지 않아서	6.20%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4.60%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가해자가 내 친구라서	3.10%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로 생각해서	1.50%
	기타(e.g.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6.20%
방어자 (n = 51)	피해 청소년의 고통이 느껴졌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3.10%
	괴롭히는 행동은 옳지 않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31.40%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아서	19.60%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기뻐서(의미 있어서)	3.90%
	기타(e.g. 가해자가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2.00%

- 이러한 결과는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보고한 높은 수준의 공감, 도덕성, 배려심 같은 방어자가 가지는 친사회적 특성이(이은영 & 황혜원, 2019; 이인숙 & 박재연, 2019)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 도움 행동을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03 학교폭력 방어자 경험조사

“처음에는 솔직히 주저하기도 했었어요. ‘아... 애 도와주다가 나도 같이 괴롭힘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뭔가 그런 생각할 시간에 더 돕자, 그냥, ‘차라리 같이 괴롭힘 당하자’라는 맘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 개요

- 기 간 : 2021년 5월 20일 ~ 6월 1일
- 방 법 : 전화
- 내 용 : 학교폭력 목격 경험, 도움 행동의 계기, 도움 방법,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
- 참여자 : 인터뷰 참여자 선정은
 - 1)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 2) 추가 인터뷰에 응한 다고 동의한 청소년 중에서
 - 3)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없고
 - 4) 피해자를 방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음

구분	나이	성별
청소년 A	18세	여
청소년 B	17세	여
청소년 C	19세	남
청소년 D	18세	여
청소년 E	22세	여
청소년 F	18세	남

Q. 학교폭력이라 판단한 이유는?

“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장난의 수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행동,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 피해자가 괴로워함 ”



중2 때였는데, 그 친구가(피해자) 좀 만만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애들이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어요. 성적인 장난도 많이... 주변 애들은 계속 장난으로만 보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그만하라'는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였어요. 저와 같은 아파트 살았는데 동네 애들한테 심하게 괴롭힘, 언어폭력 심하게 당했었어요. 부모님 이혼한 거 가지고 애들이 '아빠 없는 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비웃고... 동네 애들 거의 다가요. 그 친구가(피해자) 두 번이나 자살 시도 했었어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에게 말해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그 애가(피해자) 좀 똥똥해요. 소심한 애였는데, 그 애가 말하면 반 애들이 무시하거나 비웃고 약간 조롱하고 맞는 말 하더라도 헛소리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놀렸어요.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모두가 듣게 "무슨 냄새야~!" 이려고, 제비뽑기로 그 애랑 짝이 되면 "아~ 짜증난다!" 이러거나, 주변에서 "너 안됐다. 어쩌냐" 이러면서. 제가 좀 지켜보니까, 그 애는 진짜로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쉬는 시간만 되면 항상 엷드려 자는 척 했어요. 다들 모여서 얘기하고 노는데, 그 애는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었니까.

한 친구만 집중적으로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 심했어요. 애들 앞에서 '춤 춰봐라', '노래 불러봐라' 하기 싫은 행동을 강제로 시키는데, 누가 봐도 장난으로 보이는 것처럼 시작해서, 툭툭 치다가, 주먹도 날라가고... 선생님들도 겹보기는 잘 노는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썼어요. 피해자는 왕따 당할까 봐 반항 같은 것도 못하고.



Q.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는?

“ 가해자는, 괴롭힘과 장난을 구분 못함, 우월감 추구, 관계의 주도권, 괴롭히는 행동을 즐거워하고 과시, 고의적 ”



가해 애들 말이 '친해서 장난친 건데, 피해자 애가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나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좋은 애들.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왕따 시키면서 피해자를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고, 자기와 안 맞으면 '왕따 시켜버리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명을 왕따 시킨다는 게 잘못된 거를 인지 못하는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왕따 시키다 보면 자기가 거기서 군림한다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까지 왕따를 하게 하고.

체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여리고 작은 애들에게, 딱 보기에 숫기도 없고 말 수도 없고 만만해보이면 타겟으로 삼고 처음에는 친구인 것처럼 장난식으로 접근해서... 겉으로 보기엔 친구 같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자기보다 밑에 있고.



Q.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 안쓰러움, 피해자의 고통이 느껴짐, 보고만 있기에 불편, 가해자 행동의 부당함, 공감 ”



그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저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괴롭힌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반 애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놀리더라고요. 그런 게 상처가 될 것 같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애 상황이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도 않았고, '나 말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서로 장난치는 거야'라며 괜찮다고 그랬죠. 계속 되다 보니 그 아이(피해자)를 놀리는 게 악의적이고, '저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자는) 싫어도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계속 보고만 있기에 마음이 많이 불편 했어요.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애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고 친화력도 좋았는데, 나까지 왕따를 당하게 됐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른 애가 왕따 당할 때 보고만 있었던 게 후회 되고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학교폭력 목격하면 그냥 방관 안 해요. 사소하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Q. 피해자를 어떻게 도왔나?

“ 피해자의 편에서, 신고할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게 함께하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티내지 않고 도와주기, 다른 친구들을 설득하고 피해자의 심정 전하기 ”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선생님한테라도 얘기하는 게 어떡냐'고 설득 했어요. 혼자서 두려워하기에 저랑 같이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내가 계속 봤는데, 가해자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것 같다'고 얘기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는 신고 후에 왕따를 당했고, 그 뒤부터 피해친구가 가해자들을 무서워해서 저랑 제 친구들이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직접 막지도 못했고 어차피 신고 해봤자 선생님들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똑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 애가(피해자) 혼자 학교 가거나 집에 가고 있으면 같이 간다던지, 쉬는 시간에 혼자 있으면 뭐 물어보러 가는 것처럼 일부러 계속 말 걸고 그랬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같이 점심 먹는 거... 가해자들도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덜 괴롭히거든요.



가장 먼저, 피해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 애 마음을 알고 나니 어떻게 도울까 생각했죠. 우리 반 애들이 못된 애들은 아닌데, 반 분위기가 그 애를 자주 놀리다 보니 의식하지 못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된 거라, 반 애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했죠. 좀 마음이 넓다고 생각되는 애들, 성격도 좋고 인기도 좀 있는 애들부터 한 명, 두 명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 애의 심정을 대신 이야기 해줬어요. 기분 나빠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몇몇 애들이 공감하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 두 명...다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Q. 망설이는 마음은 없었나?

“ 돕다가 괴롭힘 당할까봐, 학교폭력 상황에 뛰이고 싶지 않아, 신고하고 막아주는 용기 내는 게 어려워 처음에는 피해자 돕기를 주저했음 ”



피해 친구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나는 솔직히 주저 했었어요. 애 도와주다가 나도 같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러다 뭔가 그런 생각할 시간에 뭔가 하자, '아 그래 차라리 같이 괴롭힘 당하자'라는 생각으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앞에서 대놓고는 못 도와줬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전부가 그 애를(피해자) 싫어하니까. 제가 걔를 도와주면 나도 반 애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싫고 그냥 그런 거에 뛰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죠



피해자 대신 나서고 이런 건 지금도 쉽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왕따였고, 그때는 용기 내는 게 어려워서... 그냥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만 대신 막아주고 그런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워요.



신고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어요. 신고라는 거 자체가 일이 커지는 거라 생각해서 잘 못해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신고라는 거 자체가 무서워요.

Q. 방관자가 피해자를 모른척 하는 이유는?

“ 끼어들면 배척당할까 봐, 보복이 두려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



이걸 말리다간 나도 당하겠구나 이런 분위기... 괜히 나도 괴롭힘 당할 것 같아 피해자를 못돕죠. 피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요.

그냥 보고만 있는 애들은 '나 말고 좀 용기 있는 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재량(피해자) 친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청소년 E



청소년 F

같은 약한 애들끼리는 돕기 힘들죠.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도 선생님에게 가서 얘기 했는데 선생님이 가해자들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가해자들은 앞에서만 미안하다 이러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면 보복이 오거나 선생님들 안 보이는 곳에서 '말하지 마라' 협박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보통 집단이 개인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도와요.

Q.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운 후 변화는?

“ 가해자 처벌도 반성도 없었지만, 피해 친구가 위로받음, 소극적이던 피해자가 용기를 가지고 신고함, 도움행동으로 뿌듯함을 느낌 ”



청소년 A

솔직히 말해서 그 가해학생들 자체가 반성 하지 않는 애들이어서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져도 제 친구에 대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제 친구는 더 심하게 왕따를당했죠.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나마 나와 내 친구들이라도 그 친구(피해자)곁에 있어줘서, 선생님에게 함께 신고라도 해서 피해 친구는 '속이라도 시원하다',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 당할 때는 그 친구가(피해자) 그만하라는 말도, 신고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중학교 때도 계속되니까, 작정하고 신고하고 나에게는도 증인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청소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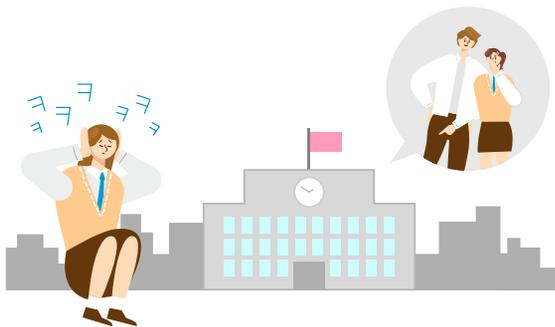


청소년 E

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나서 **우리 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반 애들은 왕따나 싸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반이 제일 분위기 좋다고 단합도 잘된다고 선생님들도 얘기 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못 가고 수학여행도 못 갔지만 학년 마쳤을 때 다들 뿌듯해 했어요.

! 결론

- ‘학교폭력은 남의 일이다’, ‘저 정도는 학교폭력이라 하기에 그리 심각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음
- 학교폭력 주변인에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당장의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동네의 작은 괴롭힘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생길 때 모든 청소년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임
-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공감, 가해자 행동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피해자의 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 행동을 하는 방어자의 행동은 청소년들 스스로 지지적이고 협동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학급/학교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음.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방어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개입 한다면, 방관자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도움행동을 실천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학교폭력 방관자 ‘함께 방어자 되기 5단계’ 제안



04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방안

“ 한 사람의 방관자라도 피해자의 편에 선다면 학교폭력 상황을 종료 시키거나 피해자가 위로받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방관자도 학교폭력 방어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개선 필요

- 학교폭력 해결의 관심을 단 한 명의 방관자라도 방어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와 예방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 지지적이고 협동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 변화를 위해 청소년 희망센터를 운영,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또한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예방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 청소년 폭력예방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공감·배려 중심의 청소년 문화 조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올해에는 ‘청소년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방어자 경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청소년용 지침서」 개발(바로가기 ▶ 청소년용 학교폭력 대응 지침서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전국의 또래상담자 및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본원 유튜브 채널 ‘고민프리상담소’에서 학교폭력 이해와 학교폭력 방어자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임

■ 학교폭력 상황에서 청소년의 피해자 도움 행동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사례와 방법 제시

- 학교폭력 방관자의 방어자 되기를 목표로 ‘방어자 관점’에서 학교폭력 상황 목격부터 도움행동 실천까지의 과정을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편에 서기를 주저하는 방관자에게 무거운 책임감 보다는 부드러운 설득으로 피해자 도움 행동을 유도(넛지(nudge)효과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즉, 학교폭력 상황 목격 후
 - 1) 학교폭력 판단하기, 2) 도움주기 생각해보기(피해자의 심정 생각해보기, 망설이는 나의 마음 점검해보기), 3)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하기의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저하는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설득함으로써 방어자 되기의 선택을 유도
- 잘못된 장난에서 학교폭력이 시작되듯, 청소년에게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행동도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작은 변화를 끌어내는 전략이 될 것임

1)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H. 셀러 교수가 넛지(팔꿈칠 슬쩍 찌르다)효과를 발표한 후 화제가 된 것으로,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로 인간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팔꿈치를 톡 치듯 부드럽게 개입하면 타인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

- 고경은 & 이수림. (2015).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 중학생의 특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3(1), 1-28.
- 교육부. (2021. 01. 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1. 04. 15.).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개최. 보도자료.
- 김윤주. (2021. 02. 24). 학창시절 학폭피해, 성인 됐다고 잊힐까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238.html
- 남미애 & 홍봉선. (2015). 학교폭력 주변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0), 109-144.
- 이은영 & 황혜원. (2019). 아동의 개인 및 환경요인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 아이젠버그의 친사회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204-248.
- 이인숙 & 박재연. (2019). 학교폭력 주변인 중 방어자의 특성에 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4), 219-227.
- 손강숙 & 이규미. (2015).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17-348.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푸른나무재단. (2021). 2021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교육부.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4), 453-459.
- UNICEF. (2016, October 14). Ending the torment: Tackling bullying from the schoolyard to cyberspace.
<https://www.unicef.org/documents/ending-torment-tackling-bullying-schoolyard-cyberspace>



친구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멋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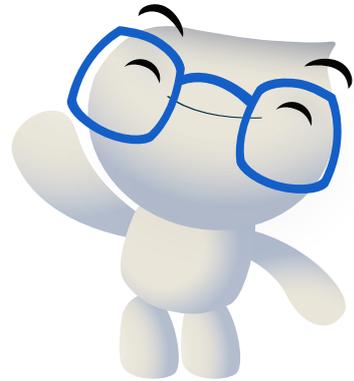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신나는 선택 해보지 않을까?



안녕, 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도담'이야.

내 이름은 '청소년들이 아무 탈 없이
자라나는 모양'을 뜻하는 순 우리말
'도담도담'에서 지어졌어.



만나게 돼서 반가워, 우리 친구하자~

우리 친구 된 김에 너도 나와 함께 신나는 선택 해보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멋진 일을 말이야.

바로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프로젝트!

1 학교폭력 제대로 알고 있니?

학교폭력 방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2조에서 정의되어 있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2021)



어려운 용어가 많지?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신체폭력

- 1 상대방을 신체 일부(손, 발)나 물건 등으로 때리는 행동(폭행)과 때려서 상처를 입히는 행동(상해)
-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감금)
- 3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함으로써 본인의 말을 따르게 하거나(약취) 속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행동(유인)
- 4 상대가 싫어함에도 장난이라며 밀치기, 때리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동(폭행)



언어폭력

- 1 학교, 학원, SNS(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등), PC방, 게임 채팅 등의 온·오프라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퍼뜨리거나(명예훼손) 외모비하, 욕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모욕)
- 2 전화, 문자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행동(협박)



강요

- 1 숙제 및 게임 대행, 뽕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는 행동
- 2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행동



금품갈취

- 1 금품, 물건 등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겁을 주는 행동(공갈)
- 2 타인에게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갚겠다며 빌린 후 돈을 갚지 않는 행동(사기)
- 3 돌려줄 생각 없이 타인의 옷이나 물건을 빌린 후 지속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행동(사기)
- 4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는 행동(갈취)



성폭력

- 1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넣는 행동
- 2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동
- 3 말, 행동,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동



따돌림

- 1 집단(2인 이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리기, 겁주기, 욕하기, 피하기 등의 행동
- 2 집단(2인 이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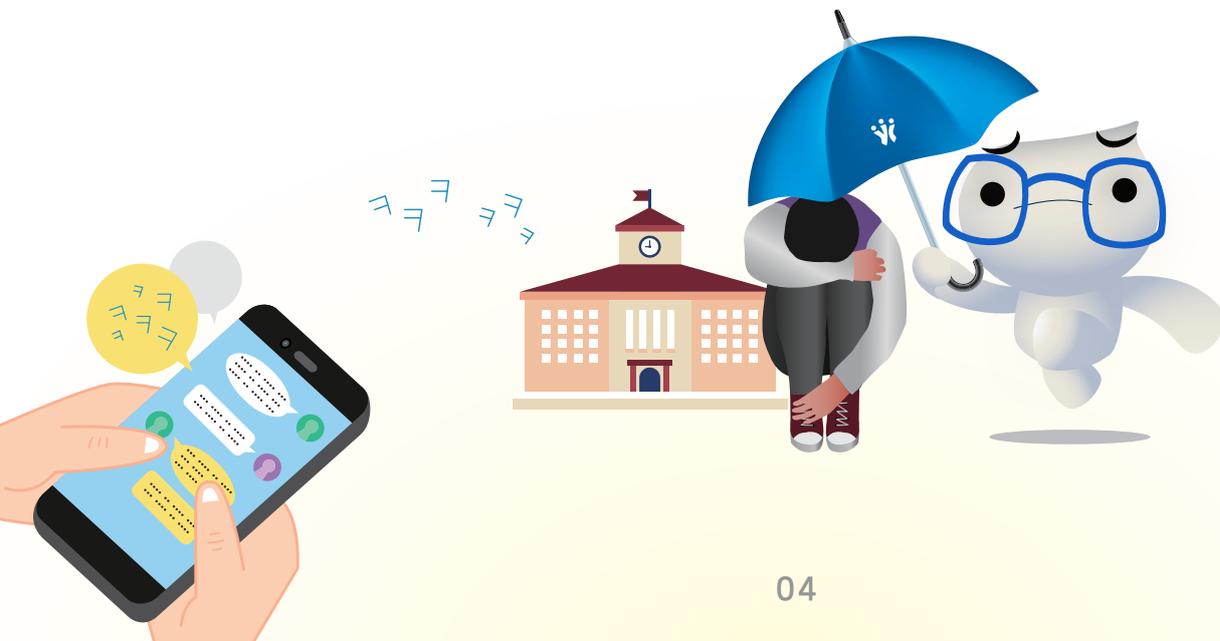
그리고 요즘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 때는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폭력'이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사이버 폭력

- 1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상대방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
- 2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등에 상대방을 욕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
- 3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거짓된 글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적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동
- 4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고 조롱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온라인 게시판, SNS에 유포하는 행동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구분이 안갈 때는 한가지 확인이 필요해.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바로 학교폭력이야.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돼.

학교폭력예방법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학교에서의 봉사
- ✓ 사회봉사
-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 전학
- ✓ 퇴학처분



2

학교친구들은 어떤 폭력으로 힘들어 할까?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20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응답건수 (학생 천명당)



언어폭력 4.9명



집단따돌림 3.8명



스토킹 1.0명



신체폭력 1.2명



사이버폭력 1.8명



금품갈취 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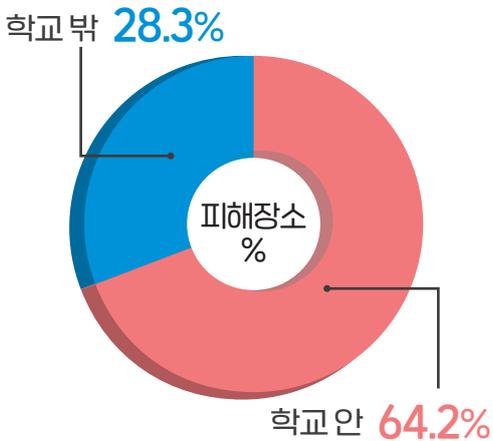
성폭력 0.5명



강요 0.6명

출처: 교육부,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학교폭력 피해유형 응답을 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



학교 안 (%)	교실안	복도	운동장	화장실
	32.5	11.5	7.4	3.4
학교 밖 (%)	특별실	기숙사	급식실	
	1.6	0.5	7.3	

학교 밖 (%)	놀이터	사이버공간	학원주변	학교밖체험
	6.6	9.2	3.7	4.1
학교 안 (%)	집, 집근처	PC 노래방	기타	
	3.9	0.8	7.4	

출처: 교육부,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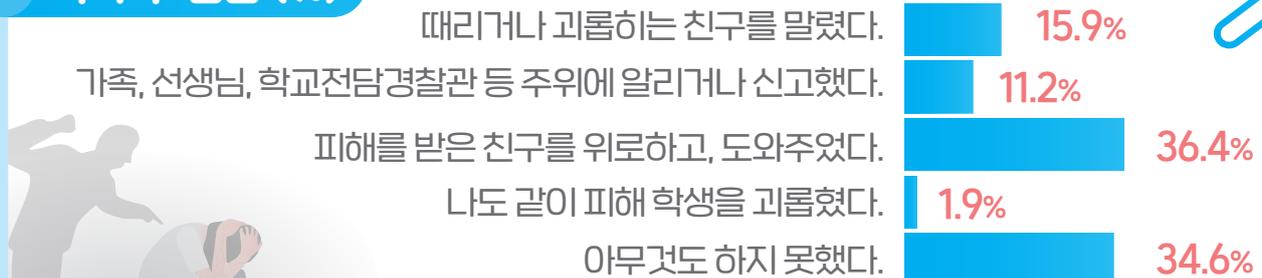
음... 근데 이상한 건 학교폭력의 절반이 학교안(64.2%)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3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교실 안이라면 친구들도 다 있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그 곳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그걸 목격한 친구들도 많았다는 거겠지? 학교폭력을 목격한 많은 친구들 중 가해자를 말리거나 피해자를 도와 준 친구들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존재해.

목격 후 행동 (%)



출처: 교육부,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왜 일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한걸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섭고 나한테도 무슨 일 생길까봐',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더라.

방관자의 이유



- 무섭고 괜히 나서면 나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 어리둥절한 상황이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 피해청소년을 좋아하지 않아서
-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가해자가 내 친구라서
-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거로 생각해서
- 기타(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 학교폭력 경험 실태조사



너는 어땠어? 학교폭력을 목격했지만 그냥 지나쳤었니? 아니면 피해 친구를 도와주었니?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작은 도움을 줬다면 그 친구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야. 대단하고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것.

그때 넌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학교폭력 방어자'가 될 수 있어.

4

피해 친구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걸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당시에도 정말 힘들었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



19살 여학생

“항상 생각나요. 그 아이들의 얼굴, 정말 아직도 생각만으로 눈물이 나요.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히더라구요. 1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그 애들이 나오는 꿈을 꺾어서 지금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꿈을 꾸 낯은 정상적인 생활도 좀 힘들고요.”

“갑자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얽히는 순간 다 왕따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후론 진짜 자해라든가 이런걸 많이 해봤어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 너무 괴로웠어요.”



20살 여자



42살 남자

“그 당시에 가졌던 감정은 분노죠. 나를 괴롭힌 애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고요. 억울함, 분노 같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감정들은 잊히지 않아요. 절대로. 만약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면 솔직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2~3일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다음 2~3일은 내내 자는게 20대 중반까지의 일상이었어요. 정신과에 가봤더니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약으로 낫기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30살 여자



28살 여자

“사람들 시선이 저를 향하는게 무서웠어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자리에 서거나 주목을 받으면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경기하듯 벌벌 떨고 아무말도 못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싶고 ‘이미 속으론 나를 경멸하고 있을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대인기피증이라고 하죠.”

씨리얼, 2019, “나의 가해자들에게”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때?
돕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만 내가 알려줄께,
우리 함께 돕는 방법을 생각해볼까?



먼저, 학교폭력 피해자를 돕는 행동에 대한
너의 생각을 체크해볼까?



학교폭력 피해자 도움 행동에 대한 오해

☑ 또래 괴롭힘, 학교폭력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또래 괴롭힘, 학교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무리 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누가 당하는 걸 봐도 '이번에는 저 애가 당하네'라고 그냥 한
번 보고 말게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다.

→ 상대방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애들이 놀릴 때 그냥 웃고 마는 애가 있어서 '재한테는 별 일이 아닌가보다' 고
생각했었어요. 어쩌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다'면서
우는데 피해자에게는 장난이 아니고 학교폭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 학교폭력을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 눈 빛 한 번, 말 한마디로도 학교폭력이 멈출 수 있다.

하는 친구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하는 아이를 보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지나가듯이 '그러지 말라'고만 해도 바로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기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 이정도 학교폭력은 일상으로 별일 아니라 생각했다.

→ 폭력에 둔감해지면 점점 더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 심했어요. 누가 봐도 장난처럼 보이는 것처럼 시작을 해서
장난식으로 툭툭 치다가 주먹이 날라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피해자 편에서 행동하기가 효과가 있을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래?



지켜보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그 친구가 (피해자) 좀 많이 똥똥해요. 체육대회였는데, 애들이 그 애가 뛰면 킁킁대고 웃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괴롭힌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반 애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놀리더라고요.”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큰소리로 “무슨 냄새야~!” 이러고, 제비뽑기로 그 애랑 짝이 되면 “아~ 짜증난다!”, 다른 애들은 “너 안됐다. 어찌냐” 이러면서 놀리고, 제가 좀 지켜 보니까, 그 애는 진짜로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쉬는 시간만 되면 항상 옆드려 자는 척 했어요. 다들 모여서 얘기하고 노는데, 자기는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거 보니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먹고 학교 마치고 개네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울먹이면서... 그 애 이야기가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반 애들이 못된 애들은 아닌데, 반 분위기가 그 애를 자꾸 놀리다 보니 의식하지 못하고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을 하게 된거였죠.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반 애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했죠. 좀 마음이 넓다고 생각되는 애들, 성격도 좋고 인기도 좀 있는 애들부터 한 명, 두 명...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따돌림을 당하는 그 애의 심정을 대신 이야기 했어요.

기분 나빠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몇몇 애들이 공감하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그 애랑 놀게 되고 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따돌림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집단따돌림 피해 친구를
도운 경험이 있는 18세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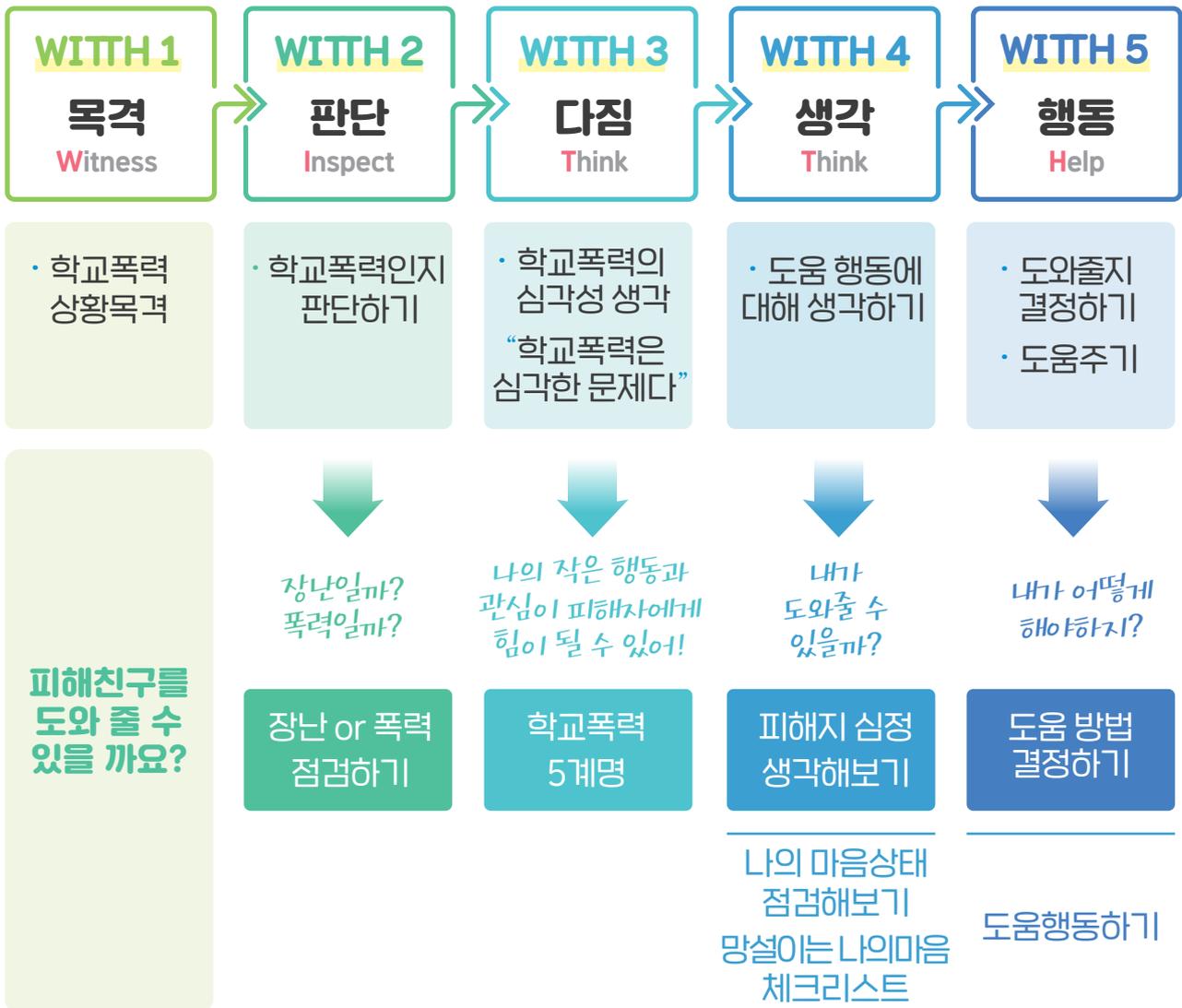
6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피해자 친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해?
 가해자들에게 멈추라고 외치는 거? 선생님한테 대신
 말해주는 거?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친구가 말하더라, '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필요했어' 라고.



기억해! 함께 학교폭력 방어자 되기 WITHH 5!



WITH 1 목격 Witness

학교폭력 상황 목격
피해 친구를 도와 줄 수 있을까요?



WITH 2 판단 Inspect

친구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때리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어울렸으니까,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보고 있지만 하나 학교폭력이 아닌 걸까요?



장난과 학교폭력 구별하기

1 하기 싫은 행동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예) 막상 본인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애들 앞에서 춤을 춰라, 노래를 불러라'라고 시키더라고요.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보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 놀고 있나보다'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고요 (중 3 남학생)

2 피해자에게 부당하거나 정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다 그렇다 아니다

예) SNS에 다른 사람들도 보게 완전 저격글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올리는 애들이랑 같이 흥을 보더라고요. 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그냥 일대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고 2 여학생)

3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예) 지나가다가 책상 위의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매번 한 애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물건을 떨어뜨린다면 그건 실수도 장난도 아니죠 (고1 여학생)

장난과 학교폭력 구별하기

- 4 집단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아니다

예) 운동을 잘 못하는 애가 있었는데 누가 체육시간에 개가 달리는 모습을 놀린 걸 시작으로 '둔하다, 땀을 많이 흘린다'는 식으로 점점 더 많은 애들이 놀리게 되더라구요. 나중에는 한 조가 되거나 하면 '아 뭐야, 땀 냄새 나'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요 (중 3 여학생)

- 5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 같다 그렇다 아니다

예)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엎드려 있는데 그냥 개가 학교 와서 앉아서 진짜 자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이 안오는데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가 없으니까 (고 1 여학생)

- 6 이상향을 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다 아니다

예) 장난은 쌍방인데 폭력은 일방이잖아요? 말이든 그냥 툭툭 치는 거든 일방적인 폭력을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고 1 남학생)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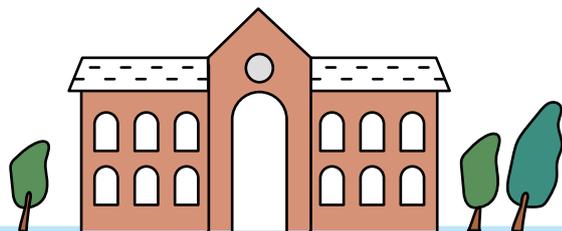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정의해보고
생각해봄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보자~



학교폭력 5계명

- 01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위법행위이며 범죄이다.
- 02 학교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오랜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03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나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 가족 등 모두가 학교폭력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 04 따라서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 0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게 중요하며 나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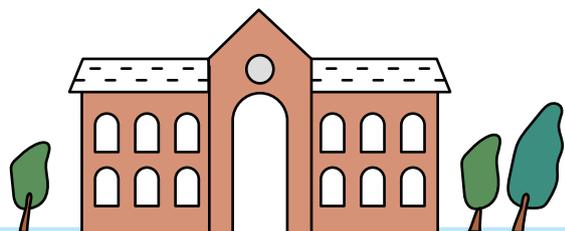


피해자가 도움을 원할까?
 피해자가 도움을 원하지 않을까?
 내가 돕는게 맞을까?
 도와주는게 소용이 있을까?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 01 외롭고 슬프다.
- 02 위로가 필요하다.
- 03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 04 화가 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대처할 수 없다.
- 05 무력하고 약한 자신이 비참하다.
- 06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 07 수치심을 느낀다.
- 08 도움이 필요하지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 09 마음을 나눌 단 1명의 친구라도 있었으면..





나의 마음상태 점검해 보기!(망설이는 나의 마음 체크리스트)

망설이는 나의 마음 체크리스트

- 피해자를 돕는 아이들은 특별한 이유 (피해자와 친한, 정의감 있는 등) 가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안쓰럽고... (피해자가)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괴롭힐 당할 만큼 이상한 애는 아니었거든요. 정의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피해자 애가 억울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도와줬어요. (청소년 A)

- 학교폭력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 아니다

내가 그 애를(피해자) 도와주면 친구들이 나까지 싫어할 것 같아 고민 많이 했는데, 가해자들 없을 때 내가 말이라도 걸어주면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 앞에서 대놓고는 못 하죠. 대신 혼자 학교 가고 있으면 말 걸고 같이 간다든지, 쉬는 시간에 그 애가 혼자 있으면 뭐 물어보러 가는 것처럼 일부로 계속 말 걸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청소년 B)

- 피해자가 겪는 학교폭력이 나와 상관이 있나? 그렇다 아니다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애들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고 친화력도 좋았는데, 나까지 왕따를 당하게 됐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른 애가 왕따 당할 때 보고만 있었던 게 후회 되고 부끄러웠어요. 그 경험 때문에 학교폭력 목격하면 그냥 방관 안해요. 사소하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요. (청소년 C)

- 피해자를 돕다가는 나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다 아니다

나섰다가는 학교폭력 피해 입을까봐 적극적으로 못 도와주겠더라고요. 내가 피해자를 도와주면, 애들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고자 보호제도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분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요.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했어요. (청소년 D)

-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다 아니다

귀찮은 상황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도 했고, '나 말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서로 장난치는 거야' 라며 괜찮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아이(피해자)를 놀리는게 좀 악의적이고 (피해자는) 싫어도 말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서, 친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가해자 애들에게 '야 그만 해라' 라고 한마디 했죠. (청소년 F)

학교폭력 피해친구를 돕기 위해
 나를 희생하여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친구가 당장의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것도
 피해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

피해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1 피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제가 반장인데,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혹시 힘든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피해 친구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해보니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반 애들을 설득 했어요. (방어자 청소년 B)

2 어른에게 알리기

고통을 당할 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신고라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고통을 당한다고 판단이 되니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알렸어요. (방어자 청소년 B)

3 티내지 않고 도와주기

피해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어주고, 혼자 있을 때 옆에 가서 말 걸어 주고 그랬어요. (방어자 청소년 C)

4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한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었으면, 한사람이라도 내 친구였으면 덜 힘들텐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피해자 청소년 A)
 피해 친구에게 '니 잘못이 아니야', '난 네 편이야' 라고 말해 줬어요. (방어자 청소년 D)

5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두려웠는데, 반 친구가 선생님에게 함께 가겠다고 용기를 줘서 신고할 수 있었어요. (피해 청소년 B)
 여러명이 한명을 괴롭히고 있길래 나 혼자 그 아이들을 제지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학교폭력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니 가해 애들이 도망갔어요. (방어자 청소년 E)

6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모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정도가 좀 지나쳤죠. 그래서 가해자에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방어자 청소년 F)

7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도와줬다가는 보복이 두려워서, 저랑 친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와 같이 다녀주자고 이야기했어요. 점심시간이나,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라든가... 여러명이 있으면 괴롭히지 못할테니까요. (방어자 청소년 F)

방어자 되기 예시 1

WITH 1 목적 | Witness

- “노래를 불러달라고
- 하면 **괴롭힘**일까요?”



WITH 2 판단 | Inspect

장난 or 폭력 점검하기

- 하기 싫은 행동을 강제로 시키고 있다.
- 평소 모습을 봤을 때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
- 소극적이지만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 노래를 불러 달라며 강요하고 있다.
- 원하지 않은 행동을 강요받고 있어서 불편해 보인다.

WITH 3 다짐 | Think

학교폭력 5계명

- 1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위법행위이며 범죄이다.
- 2 학교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3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4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 5 나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된다.

WITH 4 생각 | Think

피해자 심정 생각해보기

- 누가 도와줬으면 싶기도 하고 막상 도와준다면 스스로 해결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다.
- 하기 싫은 일을 강요 받는데 화가 날 것 같다.
- "망설이는 나의 마음 체크리스트"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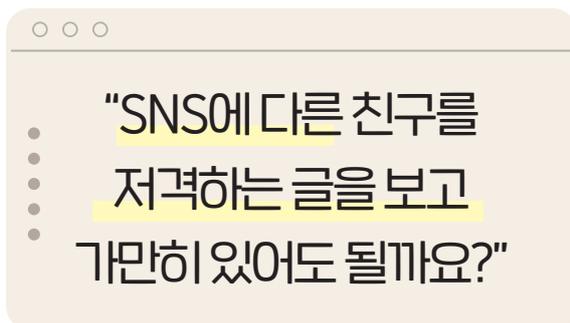
WITH 5 행동 | Help

도움행동하기

-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낸다.
-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해서 노래를 시킬 때마다 '조용히 하자'고 이야기한다.

방어자 되기 예시 2

WITH 1 목격 | Witness



○ WITH 2 판단 | Inspect

장난 or 폭력 점검하기

-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흉을 보는 것은 지나치다.
- 한 명이 저격글을 올리자 다른 사람도 저격글을 올리거나 그냥 보기만 하고 있다.
-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욕하는걸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 WITH 3 다짐 | Think

학교폭력 5계명

- 1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위법행위이며 범죄이다.
- 2 학교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3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4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 5 나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된다.

○ WITH 4 생각 | Think

피해자 심정 생각해보기

- 공개적으로 저격을 당하는 데 당황스러울 것 같다.
- 저격글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울 것 같다.
- 왜 내가 저격을 당하는지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다.

○ WITH 5 행동 | Help

도움행동하기

-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민을 들어준다.
- 피해자에게 사이버 괴롭힘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시 전문기관을 알려준다.

방어자 되기 예시 3

WITH 1 목격 | Witness

“쉬는 시간마다
별명을 부르며 놀리고 툭툭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WITH 2 판단 | Inspect

장난 or 폭력 점검하기

- 별명으로 불릴 때 마다 불편한 표정이다.
- 친구를 툭툭 칠 때 '하지말라' 고 말하는데도 자꾸만 한다.
- 친구의 말수가 줄고, 쉬는 시간마다 자꾸 나가려고 한다.
- 별명이 불리고 툭툭 침을 당할때마다 친구의 얼굴이 찡그려진다.
- 놀리거나 툭툭 치는 정도가 자꾸 심해져서 내가 보기 불편하다.

WITH 3 다짐 | Think

학교폭력 5계명

- 1 학교폭력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위법행위이며 범죄이다.
- 2 학교폭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3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4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 5 나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된다.

WITH 4 생각 | Think

피해자 심정 생각해보기

-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별명이 불리워지고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울 것 같다.
-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해자들의 행동이 더 심해지니까 화가 나고 우울할 것 같다.
- 점점 심해지니까 무서울 것 같다.
-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반 친구들이 밉고, 소외감이 들 것 같다.

WITH 5 행동 | Help

도움행동하기

-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표현한다.
-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 해서 피해자 친구와 함께 다닌다.
-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서 말을 건다.



7

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너라면?



만약 너가 학교폭력 피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을 당한 너의 잘못은 없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 학교폭력을 당한 후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가만히 있기 보다는 주변의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봐. 훨씬 든든할 거야.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힘든 경우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에 전화하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cyber1388.kr) 접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무엇보다 너의 학교폭력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폭력 전문기관(117)에 신고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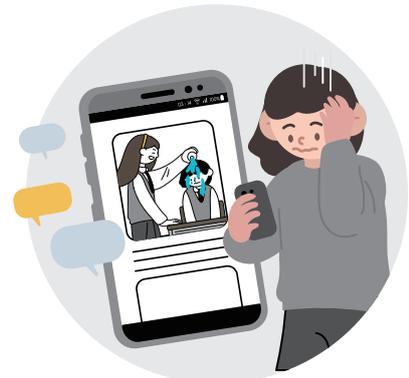


신고 절차 상 너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거야.



너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목격한 친구나 주변사람을 기억해두고 신체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기록에 남겨둬.

전화 협박을 받았을 경우 녹음을 해두고 문자나 SNS 메시지는 캡처를 해둔다면 나중에 학교폭력 피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학교폭력 신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117"에 전화해서 물어봐.



모든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니 안심하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잘 알겠지?

교내신고방법



구 두 교사가 학생을 통해 파악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교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메 일 교사 메일 또는 학교 메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교사 휴대전화 및 학교 공동 휴대전화로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외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 상담·신고)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여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상담을 받거나 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신고

문자로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0117로 보내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안전 Dream 사이트의 '신고상담'탭에서 '학교폭력'탭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